

 금융위원회	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 font-size: 2em; font-weight: bold;">보 도 자 료</div>				
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ue; padding: 2px;"> 보도 </div>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ue; padding: 2px;"> 배포 시 </div>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ue; padding: 2px;"> 배포 </div>	2020.11.18.(수)	

책 임 자	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장 이 석 란(02-2100-2850)	담 당 자	윤 우 근 사무관 (02-2100-2852) 김 준 수 사무관 (02-2100-2855)
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	--

제 목 : 「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하위법령 시행으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금융거래지표 관리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.

1 추진배경

- **(글로벌 지표금리 개혁)** 국제 금융거래에 널리 활용되던 런던은행간 금리* 조작 사태(12.6월) 등을 계기로,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금융지표 관리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**글로벌 제도개혁 과제**로 대두되었습니다.

* LIBOR: London Inter-Bank Offered Rate

※ [참고] 글로벌 지표금리 개선 추진방향

- 금융안정위원회(FSB)는 지표금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2가지 정책 방향 권고(14.7월)
 - ① 조작 가능성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**호가기반 기존 지표금리 제도 개선**
 - ② **실거래 기반 무위험 지표금리**를 개발하여 파생거래 등의 준거금리로 활용 유도

- 특히, EU는 제도개혁의 일환으로 **EU 벤치마크법**을 제정하였는데, 동 법은 EU의 승인을 받지 않은 금융지표를 활용한 EU 금융 기관들의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(22.1월 시행 예정).

- **(금융거래지표법령 제정)** 이에, 국제적인 제도개혁 동참 및 EU 승인 확보 등을 위해 금융위원회는 「**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**」(이하 '금융거래지표법')을 '19.11.26일 제정'(20.11.27일 시행)하였고,

- 금융거래지표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해, 금번에 **시행령 및 감독규정***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.

* [시행령] 11.17일 국무회의 → 11.27일 시행 / [감독규정] 11.18일 금융위 → 11.27일 시행

※ [참고] 금융거래지표

- 대출, 파생상품 계약 등 각종 금융거래에서의 지급·교환액,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 결정시 준거가 되는 수치를 의미(例: 환율, 각종 금리, 주가지수 등)

2 금융거래지표법 시행령 · 감독규정 주요 내용

< 금융거래지표법 주요 내용 (☞ 상세내용 참고2) >

- ① 금융위가 주요 금융거래지표를 중요지표 지정(사용규모, 대체가능성,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고려)
- ② 금융위가 중요지표를 산출하는 기관을 "중요지표산출기관"으로 지정
- ③ 중요지표산출기관의 의무: 산출업무규정 마련 및 주기적 점검, 중요지표 관리위원회 설치 등
- ④ 기초자료제출기관의 의무: 중요지표 산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중요지표산출기관에 제출 등
- ⑤ 중요지표사용기관의 의무: 중요지표를 활용한 금융 계약시 금융소비자에게 설명서 교부 등
- ⑥ 기타 감독·검사 및 법령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

1 (심의위원회 설치) 금융위원회는 중요지표의 지정 및 해제, 기타 중요지표 관련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**심의위원회***를 둘 수 있습니다.

* 금융위원회, 기획재정부, 한국은행, 금융감독원 관계자 및 위촉직 위원 3인으로 구성

2 (산출업무규정 포함 사항) 법률의 위임에 따라 중요지표를 산출하는 기관("중요지표 산출기관")이 제정하는 **산출업무규정**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.

○ 산출업무규정은 **중요지표 산출기관**은 물론, **기초자료 제출기관***, **중요지표 사용기관****이 준수해야 할 주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.

* 기초자료 제출기관: 중요지표 산출기관이 산출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장거래 자료, 호가 추정치 등을 제공하는 기관

** 중요지표 사용기관: 중요지표를 금융거래의 준거 등으로 사용하는 금융회사 등

(i) (**중요지표 산출기관**) 중요지표 산출방법 및 절차, 이해상충 관리 방안, 기초자료 제출기관 관리·감독방법, 중요지표 산출 업무 위탁시 그 처리 절차 등

(ii) (**기초자료 제출기관**) 기초자료 보관·제출 절차, 제출업무 담당자의 자격·책임 및 교육, 내부통제장치 등

(iii) (**중요지표 사용기관**) 중요지표의 정의, 산출방법 및 절차 등을 설명한 중요지표 설명서 마련

③ **(중요지표 관리위원회)** 법상 중요지표 산출기관은 **중요지표 관리 위원회**를 설치해야 하는데, 동 위원회의 구성·운영 관련 세부 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하였습니다.

- (구성) 전문성을 갖춘 5명 이상의 위원(외부위원 2명 이상)으로 구성하되, 위원의 과반수 그리고 외부위원은 이해상충의 소지가 없는 사람일 것
- (심의·의결사항) 산출업무규정의 적정성 검토, 산출업무규정 준수 여부 점검 및 위반시 조치사항, 산출업무 중단여부 결정, 기초자료제출기관 관리·감독 등 주요사항 심의·의결

④ **(중요지표 산출기관 등의 의무)** **산출업무규정의 적정성 검토** 및 **준수 여부 점검, 자료 보존** 등 법상 중요지표 산출기관 등의 의무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.

- ① (산출업무규정 적정성 검토) 중요지표 산출기관이 산출업무 규정의 적정성을 검토할 때, **중요지표 산정 절차**, 산정된 중요지표를 검토·확정하는 조직·직원 관련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.
- ② (산출업무규정 준수 여부 점검) 중요지표 산출기관 또는 기초자료 제출기관의 이해상충이 우려*되는 경우에는 독립적·전문적인 외부기관**으로부터 年1회 이상 산출업무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 받아야 합니다.

* [예] 중요지표 산출기관이 자신이 산출한 중요지표와 관련된 금융상품 보유

** [예] 회계법인, 변호사, 법무법인, 외감법상 감사반 등

③ **(자료보존)** 각 기관이 기록한 날로부터 **5년간 보존**해야 하는 자료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.

- (i) **(중요지표 산출기관)** 중요지표 산출에 사용한 기초자료, 산출업무 담당자의 역할·인적사항, 비상계획에 따른 조치내역 등
- (ii) **(기초자료 제출기관)** 중요지표 산출기관에 제출한 기초자료, 기초자료 제출방법·절차의 중요한 변경 관련 사항 등
- (iii) **(중요지표 사용기관)** 중요지표를 사용한 금융거래 관련 통계, 중요지표 설명서 및 교부 실적 등

5 (중요지표 설명서 교부대상 금융계약) 중요지표 사용기관이 계약 상대방에게 **중요지표 설명서**를 교부해야 하는 금융계약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.

- 은행법에 따른 예금·적금·대출,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거래,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계약,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대출 등이 **중요지표 설명서 교부 대상 금융계약**에 해당합니다.
- 또한, 중요지표 설명서 교부시 설명해야 할 **비상계획**에 포함해야 할 **내용***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.

* 대체지표 및 그 선정 근거, 대체지표로의 전환절차, 일반투자자에 대한 중요지표 산출 중단 사실 안내 계획 등

6 (검사 및 제재)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금융감독원 및 한국 은행에 **검사·제재 권한 일부**를 위탁하였고, **과징금·과태료**의 부과를 위한 **세부기준**을 마련하였습니다.

3 기대효과

□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금융지표 관리 제도를 마련함으로써, 금융 시장의 투명성·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- 또한, **중요지표의 신뢰도**가 개선됨에 따라, 각종 대출 등을 통해 **중요지표**를 사용중인 일반 금융소비자에 대한 **보호도**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4 향후 계획

□ 금융위원회는 **금년중 심의위원회**를 개최하여 **중요지표 지정** 등을 위한 **심의기준**을 확정하고,

- '21년 상반기 중으로 **중요지표** 및 해당 **중요지표의 산출기관 지정 절차**를 추진할 계획입니다.
- 또한, '21년 중으로 한국 금융거래지표 관리 제도에 대한 **EU의 동등성 승인**을 받을 수 있도록, 속도감 있게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.

☞ 상세 자료는 <참고>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※ 참고 1 : 금융거래지표법 추진 배경 및 해외 사례

참고 2 : 금융거래지표법 체계 및 주요 내용

참고 3 : 글로벌 지표금리 개선 방향 및 주요국 대응 현황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 출처표시	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시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	금융위원회 대변인 prfsc@korea.kr	 질병관리본부 콜센터	 해외감염병 NOW
---	---	---	---	---	--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

1. 추진 배경

□ Libor금리 조작(12.6월) 등을 계기로 EU는 법률(Benchmark법)을 제정('16년)하여 금융거래지표를 관리

- 벤치마크법은 EU의 승인을 받은 금융거래지표를 활용한 금융거래만 허용하고 있어, 한국 금융지표가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향후 한국금융회사 등이 EU 금융기관과 거래 불가

□ 금융거래지표로 EU의 승인을 받는 것은 3가지 방식이 가능

< 제3국 벤치마크 승인방법 >

구 분	요 건
① 보증	• EU 금융회사가 해당지표에 대해 보증하고 모든 책임을 부담
② 인증	• <u>해당 지표 관리에 대한 제3국 감독당국의 증명(certificate)</u> • EU역내 법적대리인을 둘 필요
③ 동등성	• IOSCO 원칙을 충족하는 “ <u>법령에 의해 감독</u> ”받고 있을 것

⇒ 금융거래 지표법을 제정하고, 중요지표를 지정함으로써 ③에 따라 EU로부터 동등성 승인*을 추진

* EU는 한국의 규제·감독체계가 국제규범(IOSCO원칙) 및 EU벤치마크법과 동등한 수준으로 규율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동등성 승인 여부 결정

2. 해외 사례

□ 호주, 싱가포르, 일본, 뉴질랜드: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법률 제정을 통한 동등성 승인방식으로 진행 중

- 호주·싱가포르는 '19.7월 동등성 승인을 받았으며, 일본은 가승인을 받은 상황
- 뉴질랜드의 경우 벤치마크 관련 법률 제정절차를 거치고 있으며, 조만간 동등성 승인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전망

※ 금융거래지표법의 상세한 내용은 '19.10.31일 보도자료'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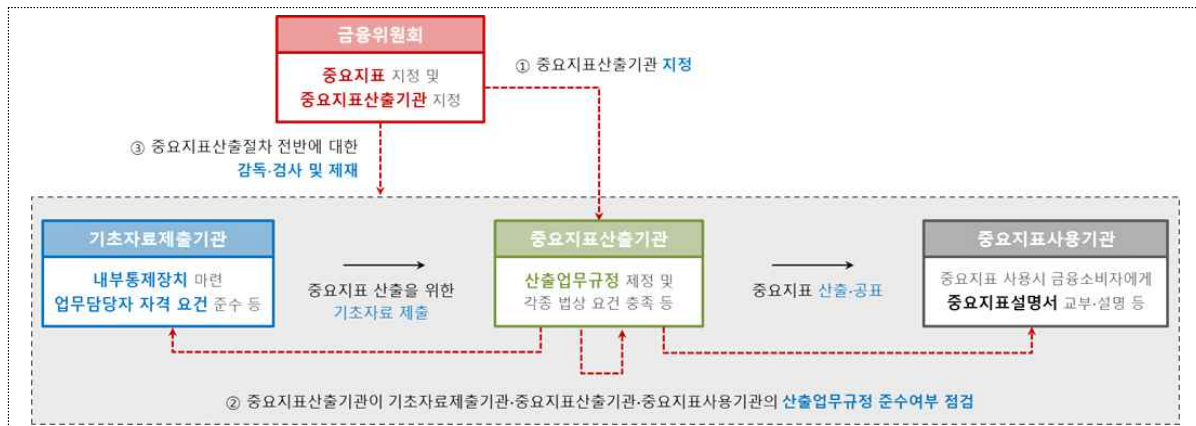
- 1 (중요지표 지정)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, 소비자보호 및 실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표를 중요지표*로 지정

* [요건] ①사용규모 대, ②대체不可, ③타당성신뢰성 저해시 시장에 중대한 영향 중 하나라도 충족

- 2 (중요지표 산출기관 등의 의무) 금융위원회가 일정 요건*을 갖춘 기관을 중요지표 산출기관으로 지정하면, 해당 기관 및 기초자료 제출기관, 중요지표 사용기관 등은 지표법상 의무를 준수해야 함

* [요건] ①타당한 산출방법 사용 및 이를 공개·관리 ②이해상충관리 및 내부통제장치 마련 ③기초자료제출기관에 대한 실효성있는 점검 체계 구비, ④산출업무규정 마련

<지표법 체계 개요>



- (산출업무규정) 중요지표 산출기관은 자기 자신은 물론 기초자료 제출기관, 중요지표 사용기관이 준수해야 할 산출업무규정을 제정하고,
 - 산출업무규정의 적정성, 각 기관의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함
 - (기타 금지행위) 중요지표 산출기관, 기초자료 제출기관은 업무 수행시 왜곡·조작 등 부정행위, 주의의무 해태 등 금지
- 3 (중요지표 제공중단) 산출기관이 지표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중단하려는 경우 사전 의견청취 및 금융위 신고의무 부과
 - ① 산출업무 중단 시 → 사유·시기 등 공시 → 금융위 신고(6개월 전)
 - ② 금융위는 산출업무 중단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
 - (i) 산출업무 이관권고, (ii) 산출업무 지속명령(24개월내) 가능
 - 4 (감독·제재) 법 위반시 조치명령권, 행정처분, 과징금·벌칙·과태료



* IOSCO(Int'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, 국제증권감독기구)

** FSB(Financial Stability Board, 금융안정위원회): G20의 위임을 받아 금융분야 국제기준 및 정책 권고안을 개발하고,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금융규제 개혁 추진 기능 등 수행

□ G20는 FSB에 지표금리에 대한 개혁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IOSCO는 바람직한 지표금리에 대한 원칙 권고안*을 마련('13.7월)

* ①이해상충방지 ②실거래데이터 기반 ③산출방법 개선 ④책임강화 등 19가지 원칙
(<https://www.iosco.org/library/pubdocs/pdf/IOSCOPD415.pdf>)

□ IOSCO 원칙에 기반하여 크게 ①기존 지표금리(IBOR*) 개선과 ②대체 지표금리 개발 두가지 방향으로 논의(FSB 권고**, '14.7월)

* Inter-bank Offered Rate(英 LIBOR, EU EURIBOR, 日 TIBOR 등 통칭)

** https://www.fsb.org/2014/07/r_140722/

① 대표성, 투명성, 공정성, 신뢰성 있는 감독 요건을 충족하도록 기존지표 산출방법 개선 및 산출과정의 규율체계 도입

② 파생상품 등 거래상대방의 신용리스크를 반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부문에 활용하기 위한 무위험 지표금리 개발을 추진